/지역 단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확대키로

다도해 서부사무소, 흑산면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서부사무소(소장 정장훈)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도서지역주민의 현지 의견수렴을 위해 ‘도서지역 찾아가는 민원처리 서비스’〈사진〉를 신안군 흑산면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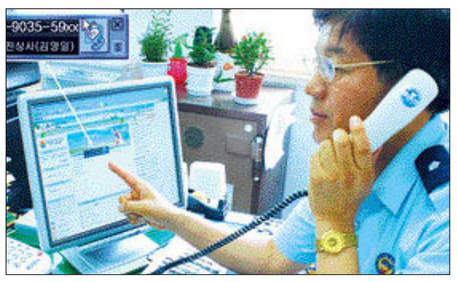
다도해서부사무소는 매년 2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민원 신청과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이같은 주민불편을 덜기위해 지난 2월부터 진도군 조도면사무소에서 6개월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8월초부터 신안군 흑산면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

다도해 해상서부사무소는 흑산면사무소에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에 ▲주민들의 공원행위 허가 신청 및 상담 ▲공원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기타 지역주민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 지역사회협력을 통한 바람직한 공원관리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여수해경 ‘전화응대 서비스’ 구축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근)는 민원인의 전화를 3초 이내에 담당자가 직접 받는 민원인 전화응대 ‘One & Zero’시스템을 자체개발 지난 7월말부터 시범운용중에 있다.

‘One & Zero’시스템은 민원인 전화를 여러 단계를 거쳐 담당 직원에게 연결해 주는 불편을 덜기 위해 자체 네트워크전산망을 이용 개발한 것으로 민원인의 전화가 오면 부서원이 사용중인 컴퓨터 모니터에 민원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표시돼 3초 이내에 담당자가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개발 운용중에 있는 최종림 여수해경 경리계장은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상대방 신원을 알 수 있어 즉각적인 민원 상담이 가능해 민원인들로부터 ‘시간과 전화요금이 절약된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진도, 10~12일 ‘신비의 바닷길 축제’

제 29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10일~12일까지 고군면 회동과 의신면 모도리 일원에서 열린다.

회동리와 모도 사이 2.8㎞ 바닷길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폭 40~60m로 갈라지는 것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씻김굿을 비롯해 진도북놀이, 남도들노래, 강강술래 등 다양한 전통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한편,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은 ▲10일 오후 6시 ▲11일 오후 6시 40분 ▲12일 오후 7시 20분을 정점으로 해 전후 30분씩 약 1시간 정도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화순 죽수서원 관리 엉망

올 초 관리인 퇴임 후 “예산 없다” 방치

장맛비에 기와 무너지고 단청 벗겨져

화순군 한천면 죽수서원(전남도 문화재 제130호)이 관리부실로 기와가 무너져 내리고 단청이 변질되는 등 원형 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당 지붕기와가 최근 장맛비에 일부 무너져 내렸을 뿐 아니라 건물의 단청색이 변질되고, 목재가 썩고 있어 화순군의 문화재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죽수서원은 그동안 관리인 1명이 상주하면서 서원 안내와 유지관리 업무를 맡았으나 올 정년 퇴임으로 공석이 되면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 김모씨는 “죽수서원을 가족과 함께 찾았으나 관리상태가 너무 한심해 서둘러 빠져 나왔다”며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 관리가 너무나 엉망이어서 아이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주민 윤모씨는 “관리인원이 공석인데도 이를 방치하는 화순군과 지역 주민의 소중한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역 기초의원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비가 늦게 책정돼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추경 예산으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화순군의 문화재 관리 및 유지비 예산은 23억여원으로 57개소를 관리하며, 죽수서원에 책정된 유지관리비는 5천여만원이다.

한편, 죽수서원은 1519년 기묘사화로 능주에 유배왔다 사약을 받고 억울하게 죽은 문정공 정암 조광조와 학포 양팽손 선생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으로, 1570년(선조3년)에 세워진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헐려졌다 1983년에 후손들이 복원을 추진, 신축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전남도 문화재 제130호인 화순 죽수서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아 원형이 훼손되고 있다. 원내는 무너져 내린 지붕기와.

“고창 풍천장어 먹고 팔팔하게 살아보세”

고창군은 ‘팔팔(8월8일) 장어데이’인 지난 8일 선운산 일대에서 풍천장어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kr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정부에 규제개선 건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이 최근 각종 규제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보다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개발계획 승인(변경)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과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것과 산지전용 허가 기준완화 및 환경영향평가 승인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현재 50%인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율을 상향 또는 전액 지원해 줄 것과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 설립을 위해 대학건물의 일부를 임차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보성군 9년연속 농정 ‘으뜸’

녹차클러스터 육성…올해도 ‘우수상’ 수상

보성군이 2006년도 농정업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보성군은 1998년부터 올해 까지 9년 연속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해 개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농정 우수군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군은 지난해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산물 수출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으며, 보성녹차클러스터사업 육성 등 차별화된 선진농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우수상 수상으로 올해 지원된 34억원의 지역특화사업비는 고소득 작목 육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의 전략품목에 집중 투자된다.

한편 보성군은 민선 4기 농정목표를 ‘농업의 회생과 농업 경쟁력 확보’로 설정하고,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푸른 꿈 열린 예술 꿈꾸는 작은 예술가’

곡성, 29일까지 운영

곡성군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옥과 공공도서관에서 다음문화예술기획연구회 주관으로 지역 어린이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푸른 꿈! 열린 예술! 꿈꾸는 작은 예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문화관광부 2006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티셔츠 그림그리기, 천연비누 만들기, 타일벽화 작업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백도는 문화재,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보존 위해 출입통제 불구 무단 상륙 낚시꾼 ‘골머리’

여수시 백도를 침범하는 낚시객들이 많아 해경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백도에 무단 상륙한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로 노모(33·여수시 안산동)씨 등 2명과 이를 태워다 준 낚시 어선 선장 김모(47·여수시 돌산읍)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백도에 무단 상륙한 낚시꾼 4명을 입건하는 등 올들어 29명을 적발했다.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떨어진 백도는 청정해역에 연평균 수온이 16.3℃로 170여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어종 또한 풍부해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 제7호인 백도는 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해 출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거문도 덕촌리 등 7개마을 460명만이 200m이내 해역에서 배낚시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백도에 무단 출입했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영산강 3단계 간척지 무상양여를…”

해남기업도시협의회, 서명 운동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영산강 3단계 간척지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해남기업도시협의회는 8일부터 영산강 3단계 간척지 무상양여를 요구하는 범 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남기업도시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하나로 추진되는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친환경생태도시 개발 여건 확보를 위해 3단계 간척지 3천만 평을 전남도에 무상양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애초 목표대로 2008년 초 착공되기 위해서는 간척지에 대한 전남도의 관리권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영암, 금호호의 수질개선과 FTA로 피해를 입게 될 해남 농업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도 무상양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도시협의회는 다음 달 9일까지 40일 동안 군민 서명운동을 벌인 후 국무총리실과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무상양여를 건의할 예정이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백련대축제 오세요” 무안군 홍보 캠페인

무안군과 무안경찰서(서장 강인철),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지사장 신재선)는 9일 무안 톨게이트에서 11일~15일까지 열리는 ‘제10회 무안 백련대축제’관련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순천, 주민생활 관련 공사 ‘주민 감독제’ 시행키로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순천시가 이달부터 3천만원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공사 가운데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역 주민대표자나 공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경리관이 임명한 사람이 선정돼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독하게 된다.

공사감독으로 참여한 시민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건의 등을 할 수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목포시, 5·6급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

목포시가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급 인사를 지난 2일에 실시한데 이어 7일 5급과 6급에 대한 대규모 승진 ·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인사명단 14면〉

민선 4기 출범 이후 첫 실시된 이번 인사에서 4급 3명, 5급 11명, 6급 19명, 7급이하 51명 등 총 85명이 승진해 민선들어 최대 승진 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규모 승진 인사에 따른 비난 여론도 거세 상당 기간 인사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 목포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이번 인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50여건이 올라왔으며 조회건수만 1만여건에 달하는 등 이번 인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